

자료로 읽는 문화예술 활동보고서

문예진흥원 펴낸 「문예연감」 1993년판



우리 문화사를 정리·진단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보다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예술 활동보고서'인 「문예연감」 93년도 판이 나왔다. 문학·미술·국악·양악·연극·무용·전승문화 등 7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지난 한해의 활동상황과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수록·분석하고 있다. 발행처는 문예진흥원(원장 이성재).

7개 분야는 개관·기획자료·주요도표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상술된다. 예컨대 문학 분야의 '개관' 부분은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문학평론으로 나뉜다. 김준오 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난 한 해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진단한다. '기획자료' 부분에는 "92년 주요 문학분야의 현황"이 수록됐고, '주요도표' 부분에는 "주요 문학동인지 장르별 분포" 등 80여개의 도표가 실렸다.

이 책에 의하면, 지난해 동안 펼쳐진 문학 행사는 모두 465건이다. 성격별로는 시낭송회 169건, 시화전 43건, 문학의 밤 행사가 35건, 백일장이 72건, 기타 146건이었다. 미술계의 행사는 국내전시회 4927건, 해외전시 107건, 외국작가 국내전 16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91년보다 594건이나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몰아닥친 화랑가의 한파 또는 경기침체"에 연유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92년의 음악행사의 총횟수는 2658회이다. 행사부문별로는 기악연주회가 1291회, 성악 부문 697회, 종합 부문 538회, 작곡부문 88회, 오페라 부문 연주회가 44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91년보다 3.1% 증가된 수치"이다. 지난해의 연극계는 "91년 연극의 해 후유증을 몹시 앓은 듯하다"고 요약된다. 그러나 "92년도 연극계는 사회와 정치적 변화, 90년대 들어 심각해진 문화적 혼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했거나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모색기로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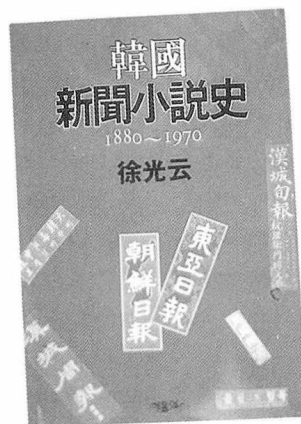
92년은 '문화부'가 정한 춤의 해여서 비교적 무용 공연이 많았다. 통계상 90년에 비해 91년에는 공연수가 10% 감소되었던 것이 92년도엔 91년에 비해 약 5%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전승문화 분야에서는 「전통축제—92년 향토축제의 몇가지 흐름」(장장식), 「고전국역—전환기에 선 고전국역」(신승운), 「해외한국학—해외의 한국학연구 현황과 문제」(김광) 등의 소논문들을 통해 92년도 전승문화 상황을 개관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A4 / 758면 / 3500원

개화기 이후 신문연재소설의 측면사

서광운 지음 「韓國新聞小說史」



전직 신문기자 출신인 서광운씨(65)가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미시적' 주제의 역사를 다룬 책을 펴냈다. 「韓國新聞小說史」가 그것으로, 1905년 11월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으로부터 1970년 8월 15일에서 71년 6월 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박경리 작 「窓」에 이르기까지의 신문연재소설을 史的으로 정리했다. 특히 1910년에서 1919년 3·1운동까지의 10년 동안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을 펴낸 도서출판 해돋이의 대표 권오훈씨는 권말에 수록된 「뒷말」에서 이 책에 대해 "어쨌든 큰 일"이라고 정리한다. 지금까지 신문연재 소설을 다룬 단행본으로 1900년을 전후해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국개화

기 신문연재소설 연구」(한원영 저, 일지사)가 유일무이했다. 따라서 신문소설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재구성한 이 책의 성과는 "큰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이라는 한 정사가 붙는 이유는 신문 '소설'이 아닌 '신문' 소설의 역사를 씌으로써 본격적인 연구물이라기보다는 다소 "측면사 내지 야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1880년에서 1970년까지의 신문연재소설사의 시기구분을 각각 개화기, 신소설기, 신문학기, 농촌문학기, 통속문학기, 전문문학기, 향토문학기로 나눈다. 그리고 신문연재소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대마다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세태소설적 요소를 가미한 연재소설만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정리했다.

이들테면 이광수의 「무정」과 「흙」, 박화성의 「백화」, 심훈의 「상록수」, 박계주의 「순애보」, 홍명희의 「임궫정傳」, 박종화의 「임진왜란」, 유주현의 「대원군」, 정비석의 「자유부인」, 홍성유의 「비극은 없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김말봉의 「절레꽃」 등등이 그것으로, 신문연재소설은 "10년에 한번씩 '히트작'이 나오는 것 같다"고 총평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나 '신문쟁이'만이 쓸 수 있는 풍부한 예화, 일화, 삽화 등등이다. 전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소설의 내용과 소설사 시대구분의 문제보다는 작품 바깥의 秘史를 들춰내고, 이 면사를 끄집어냄으로써 正史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돋이 / A5신 / 464면 / 8000원

제로 사냥꾼

이탈로 칼비노 지음/전경애 옮김/4500원

모라비아 이후 현대 이태리 소설계의 대표적 작가이자 포스트 모던 소설의 대표적 스타일리스트로 손꼽히는 칼비노 문학의 본격 소개. 환상과 극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과 내면공간을 파고든다. (현대문학1)

벌 목 끈

토마스 베른하르트 지음/김미혜 옮김/5500원

페터 한트케를 능가하는 독문학권의 최대 문제작가의 대표 소설 소개. 예술인의 파티에서 벌어지는 허위와 위선에 대한 냉엄한 관찰이 주인공 '나'에 의해 이뤄지면서, 주인공의 30년의 삶이 4시간에 의해 압축된다. (현대문학2)

무대예술론

새뮤얼 셸던 지음/김진식 옮김/7,500원

무대예술의 핵은 연기, 춤, 노래를 종합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디자인—하는데 있다는 것을 주장한 현대적 무대예술론의 핵심 저서. 100여개의 도형은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준다. 극장예술학의 첫번째 기초도서.

극마당 : 기호로 본 극

마틴 에슬린 지음/김문한·김윤철 옮김/5500원

세계적인 연극학자 마틴 에슬린의 근작. 연극의 핵심을 드라마(극)로 보면서, 그 드라마는 이제 비단 무대연극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TV극, 라디오극, 뮤지컬 등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작용한다고 본다.

예술비평·이론
교육서 전문출판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대표전화 766-3527

현대미술사

신학 및 한일관계사 관련 기초자료

「한일관계사논저목록」 「신학관계 학위논문 목록집」



신학과 한일관계사 관련 논저의 목록집이 나란히 출간됐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가 엮은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 목록집 (1945~1991)」과 한일관계사연구회가 엮은 「한일관계사 논저 목록」이 그것이다.

“한국 신학교육 50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집대성된 종합목록인 「목록집」에는 1945년부터 92년 2월까지 국내 45개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교)에서 수여된 석·박사학위 중 신학관계 및 기독교에 관계된 논문 목록이 수록돼 있어 한국신학의 맥을 짚어보는 데 유용한 工具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목록집을 엮은 곳은 우리나라 신학 도서관의 연합기구로서 신학 문헌지에 특별한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한국 신학도서관협의회이다. 그간 「신학 문헌지 총서」를 10집

까지, 「신학 문헌정보」를 32집까지 발간한 바 있는데, 그 책들을 전부 재정리 수록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협의회측은 자부한다.

「한일관계사 논저 목록」은 1910년 이후 93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한일관계사 논문 및 저서들을 수록했다. 또한 한일관계사에 대한 전문적인 월간지에 게재된 논문까지를 포함시켰다.

이 목록집은 작년 7월에 결성된 한일관계사 연구회(회장 하우봉)에서 엮은 것으로, 발간사에 의하면 “한일관계사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목록집”이다. 또한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점과 한일 양국간의 외교 및 교류가 양국의 국내상황에 영향을 끼쳤다는 두 가지 전제하에, 한일관계사의 폭넓은 이해에 필요한 여러 방면의 논문들도 포함시킴으로써 “한일관계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일본사, 나아가 동양의 문화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편리한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이 목록집은 시대·저자별로 논저를 분류한다. 제1부 시대별 분류의 경우는 일반통사, 고대·중세,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항기로 분류한 뒤 연구업적이 많은 조선시기는 다시 총설, 정치·외교·군사, 경제·무역, 사회·문화·교육, 사상·인물의 항목으로 세분된다. 제2부 저자별 분류는 우선 국내·국외로 분류되며, 재일사학자 및 북한의 연구자들은 국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눔사/A5신/490면/8000원
현음사/A5신/288면/7000원

한국의 큰스님들 생애 다룬 구도소설

윤청광 지음 '고승열전' 시리즈



“불교방송의 청취율에 불을 질렀다”는 간판프로 「고승열전」. 그중에서도 드라마틱한 생애를 보냈던 스님 4명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구도소설” 4권이 출간됐다. 방송작가이자 현재 책의해 조직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윤청광 씨가 지은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가 그것으로, 각각 청담·효봉·만암·동산 ‘큰스님’을 다루고 있다.

위대 과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큰 영혼의 소유자들을 소재로 삼은데다, 밀텍스트인 방송대본 특유의 평이한 문장과 흥미진진한 구성 등이 합쳐해 감동과 읽는 재미를 선물한다.

그 첫째권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는 세속 나이 스물다섯에 삭발출가했지

만 가문을 이을 “씨” 하나 떨어뜨려 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을 못이겨 하룻밤 파계했던 청담 큰스님의 이야기이다. 하룻밤의 파계 후 죄업을 씻기 위해 십년을 하루같이 맨발의 운수행각으로 참회고행했던 구도의 길과, 승려이기 이전에 인간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간적 고뇌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구성된다.

고승열전 시리즈의 두번째 권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는 판사에서 엿장수로, 다시 절구통 스님으로 살아갔던 효봉 스님의 일대기이다. 조선인 최초의 판사였던 그는 법관생활 10년째 되던 해에 항일투사에게 법률에 의거해 사형선고를 내리지만 양심의 소리에 의지해 결국 엿장수로 나서게 된다. 훗날 “정진제일”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행적이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는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몸소 보여준 만암 스님의 행적을 진솔하게 조명하고 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적에 마지막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으니 재산도 권력도 땅도 담아갈 수 없네”라고 가르쳤던 그의 완전무결한 무소유의 삶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네번째 책인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는 중생의 병든 마음을 구제하고자 출가·득도한 동산스님의 진솔한 삶이 정리되어 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 그의 강직했던 성품은 이승만대통령의 연이은 잘못을 한 자리에서 연거푸 꾸짖었던 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언어문화/A5신/각 310면 내외/각 5000원

눈여겨 보십시오! 제 몫을 하는 출판정보자료집이 <격일간>입니다.

매주 3번 80쪽 안팎의 알찬 내용으로 회원에게만 전달되는 국내 최초의 격일간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가 8월16일 창간되었습니다.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중요 주간지의 출간기사 스크랩과 출판광고, 시장조사, 독자정보, 저작권 등 기획발굴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매호 20쪽 이상 게재되는 해외정보만으로도 결코 회비가 아깝지 않습니다.

- 기획발굴자료 *일요판:베스트셀러 20(서울, 지방) *수요판:수요기획특집 *금요판:신간특집(1,3주) 광고특집(2,4주)
- 최신 해외정보 *일요판:일본 *수요판: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중국 등 유럽 및 기타지역 *금요판:미국
- 기획특집, 베스트셀러, 해외정보, 시장동향, 출판계동향, 독서문화, 화제의 책, 화제작가, 단신, SPC코너, 게시판 등으로 분류/편집

회비: ●3개월 100,000원 ●6개월 180,000원 ●1년 300,000원

광고를 보시고 연락 주시면 샘플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서울 중구 장충동2가 114-2 동아빌딩 5층 전화/02)271-0442-3 팩스/277-7301

격/일/간
출판정보